영암군, '삼호·미암 태양광발전' 반대

"환경 파괴·식량안보 위협"
의회·주민 실무추진단 구성
경비행기 항공산업 걸림돌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엇박자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영암군 간척지 전경.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삼호·미암면 일대 간척지에 SK E&S 등이 추진 중인 초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공식 반대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기관·사회단체, 의회에 이어 영암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농토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화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와 Sollease E&D가 삼호면·미암면 일대 16.5㎢(500여 만평)에 2G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용량으로 직·간접적인 투자비만도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외에도 특수선박 제작과 스마트팜, 자동차 튜닝숍, 드론클러스터밸리, 무화과 유통가공단지 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대단위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시설과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높은 임대료 보장 등 주민들의 소득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50여명(65만평)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영암군은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 식량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암군이 공식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영암군은 '영암 그린뉴딜시티 조성'이란 미명 하에 임차료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과 영암 스마트팜센터 건립 등 9개 지원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역 지원사업의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사전협의 없는 추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의 환경 파괴와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 소작농 피해는 물론 우량 간척농지 잠식으로 쌀과 조사료 생산 감소 등 식량안보 위협과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영암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에 포함돼 영암의 미래성장 동력인 경비행기 항공산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암군은 의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민·관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총력 저지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상부지는 대규모 집단농지와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 등 전국 최고의 우량농지로 식량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보전되어야 할 간척지"라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는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국가사업으로 영암방조제가 1996년 11월에 준공돼 삼호읍에서 해남화원까지 4.3㎞에 이른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로 꼽히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두륜산동백장학회, 해남 학생 35명에 장학금 1085만원 지급

임원식 온누리태양광 회장 출연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은 두륜산동백장학회가 최근 해남지역 초·중·고 학생 35명에게 제15회 동백장학금 1085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동백장학회는 한국예총 광주연합회장과 ㈜온누리태양광을 경영하는 임원식 회장이 출연하고 있다. 해남 출생인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4년 동안 1억4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임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해남의 꽃은 동백이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핀 동백꽃"이라며 "작은 장학금이지만 작은 사랑의 씨앗을 가슴깊이 받아들이고 알찬 열매를 맺어 해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코로나 극복 힘쓰는 지자체들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모든 군민에 10만원씩 지급

해남군이 모든 군민에게 한 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일은 이달 초순으로,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세를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남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소요 금액은 전액 군비이며,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11월30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총 3만5241세대 6만8966명이다. 지급액은 총 69억여원으로 추정된다.

해남군은 지난 9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해남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올해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전체 사업자에게 개소당 100만원, 총 63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 운영

진도군은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는 감염 차단을 위해 진료실은 물론 검체채취실(워크스루), 엑스레이실 등 전 시설에 감염 방지를 위한 음압 시설을 설치했다.

냉·난방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산소발생기, 자동혈압기,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등 장비도 구비했다.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발열·호흡기증상 환자와 의료진의 안심 진료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 신속하게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군, 전통시장 점포 237개소 임대료 50% 감면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무안전통시장과 일로전통시장의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 등 237개소이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50%를 감면함에 따라 28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해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올해에도 237개 점포에 대해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 만원을 감면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완도수산물 세계한인무역협회 인터넷몰 입점…해외 판로 확대

완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인터넷몰에 선보인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최대 한인경제인 네트워크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인터넷몰 내에 '완도 특산물 온라인 전시·홍보관'을 입점했다고 3일 밝혔다.

월드옥타몰(OKTAmall)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와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를 결합시킨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월드옥타몰 입점을 통해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전세계 68개국, 143개 지회, 7000여명의 정회원, 2만3000여명의 차세대 회원, 현지 바이어들과 연계돼 완도군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1차로 내년 중국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완도군이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한 결과 완도전복주식회사, 다시마전복수산 등 11개 업체, 40개 제품이 참여키로 했다.

완도군과 월드옥타는 지난해 1월 MOU를 체결하고 완도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등 글로벌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